정읍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

기업애로 해소 전담창구 설치·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노력
4년 연속 선정 쾌거…전북지사 표창·5000만원 인센티브

정읍시가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정읍시는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 기업의 고충·규제 개선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한 결과 4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면서 전북지사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정읍시는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등 16개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업애로 해소 전담창구 설치와 현장 기동반 운영, 지역 내 기업 동향 파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정읍시는 올해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환경 조성을 위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업체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 송부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이자 보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및 낙후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뿌리 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허맵과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구인광고비 지원사업 등의 신규시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나서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은 지역 내 기업들의 협조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신고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간접 피해 업체에 대해 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돕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식초 판매처 확대

군·제조업체, 인프라 구축

식초문화도시를 선포한 고창군이 언제 어디서든 '식초'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고창군은 지난 24일 유기상 군수를 비롯해 지역 식초제조업체와 고창군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초 제조·판매처 확대 인프라 구축'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의를 통해 고창군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 중인 '아띠다방(고창군청 1층 로비)'에서 식초음료를 만들고, 고창에서 생산된 '식초 선물세트'를 전시 판매하기로 했다.

정종만 장애인복지관장은 "식초제조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창의 전통 발효식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고창 식초를 널리 알려 식초음료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식초문화도시 고창에선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지키는 기적의 물 식초'를 마시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판매처 확대 등으로 다양한 전통발효 식초를 발굴해 미래문화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일반 군민대상 식초문화아카데미 교육과정을 3월부터 운영한다. 식초전문인 양성을 위해 정규 3개 과정(초급, 응용, 상품화)를 개설해 군민이 식초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식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이 먹거리 산업 천년대계를 잇기 위해 식초문화도시로 발돋움한다. 고창에서 생산된 각종 식초제품. 〈고창군 제공〉

남원산단 공정률 85%…연말 완공 순항

23만평 규모…상·하수도 관로포설·내부도로망 구축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원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전체공정률 85%를 나타내며 순항하고 있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23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남원일반산업단지는 우수관로 및 상·하수도 관로포설을 완료한데 이어 최근 45개 블록 중 38개 블록 토공작업과 내부 도로망 구축도 마무리했다.

앞서 남원시는 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해 6월 전북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승인(고시) 받아 같은 해 7월 분양입대 공고를 내고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 바 있다.

산업시설용지는 임대와 분양용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기업 입주 때 최적의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산단 분양면적은 49만6000㎡, 임대면적은 9만1000㎡, 분양가는 3.3㎡당 32만5000원 선이다.

남원시는 일반산단 조성 완료 뒤 본격 가동이 이뤄지면 1조원의 매출과 3500여 명의 고용창출, 인구유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원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춰 기업유치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산단은 광주대구고속도로와 순천완주고속도로가 인접하고 광주공항·군산공항·광양항·군산항 등 하늘길과 바닷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남원산단에서 기업의 꿈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일반산단 조감도.

순창군, 쌈을 넣은 도넛 '빵 도시락' 출시

미생물캐릭터 마카롱 이어 브랜드 사업 관광상품화

순창군이 '순창 빵 브랜드화 시범사업'으로 미생물캐릭터 마카롱을 출시한 데 이어 도넛과 쌈을 결합한 '순창 빵 도시락'을 내놨다.

26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 빵 도시락은 빵을 관광상품화하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쌈 도넛과 치즈맛 도넛, 고추장 맛 도넛 등 5종의 빵을 만들어 하나의 도시락에 담았다.

이 도시락은 동네빵집인 '순창 땡 도넛'과 오랜 협의를 거쳐 아이들의 간식과 나들이용 도시락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맛과 영양,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쌈 도넛은 직접 개발한 도넛의 반을 갈라 상추·무·버섯·시금치·소고기 등 건강한 재료로 속을 채우고 순창고추장으로 개발한 소스를 뿌려 먹는 빵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 맛을 다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쌈 도넛에 들어가는 고추장·찹쌀가루 등을 지역 농산물로 사용하는 만큼 지역경제의 선순환도 이뤄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쌈 도넛과 함께 개발한 '콩볼'과 '땡볼'은 콩가루와 순창 고추장으로 만든 소스를 묻힌 것으로, 바삭한 식감과 작고 아담한 크기로 아이들과 여성들이 음료와 함께 간단한 간식으로 즐기기에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금화 순창땡도넛 대표는 "순창 고추장을 이용한 도넛으로 순창의 대표 빵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면서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쌈을 활용해 디저트용 빵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다"고 제품 출시 배경을 밝혔다.

순창군은 순창 빵 도시락이 고추를 발효 시켜 만든 매운맛 으라차차 소스와 잘 어우러지는 것을 고려해 기호에 따라 뿌려 먹을 방안을 마련하고 끼니 대용을 넘어 간식으로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쌈을 품은 도넛 빵 도시락.

"보급종 콩·팥 종자 신청하세요"

정읍시, 내달 16일까지 접수

정읍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 보급종인 콩·팥 종자를 읍·면·동 상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정읍지역으로 공급되는 품종은 대원, 대찬, 선풍, 풍산나물, 아라리팥 5품종으로 총 7.8t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콩 2만5510원/포(5㎏), 팥 4만3860원/포(5㎏)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16일까지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품종인 대찬, 선풍 품종은 장류용 콩이며 논 콩 재배용으로 개발돼 도복에 강하고 꼬투리가 달리는 부위가 높아 콤바인 수확 시 손실이 적다. 10a당 수량이 대찬 330㎏, 선풍 340㎏으로 다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다.

조기 파종이나 밀식재배는 쓰러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적기 파종 시기와 적정 재식밀도로 재배해야 한다.

정읍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에서 고품질 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보급종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수제공예품 '청년 창업공간' 입주자 모집

군산시는 수제 공예품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공간 '수제 창작 플랫폼'을 조성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가죽, 도자, 금속 등을 활용한 공예나 리빙 등의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입주해 직접 제품을 만들고 전시·판매하는 공간이다.

군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8개의 창업 공간과 함께 체험장, 판매장 등을 갖췄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마케팅도 지원한다.

입주 희망자는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군산시 일자리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